

<div> <div>&lt;읽기와 쓰기&gt; 제 5기 독후감</div> </div>			
<div> <div>■ 분반</div> </div>	<div> <div>27반</div> </div>	<div> <div>■ 학부</div> </div>	<div> <div>컴퓨터공학</div> </div>
<div> <div>■ 담당 교수</div> </div>	<div> <div>허윤진</div> </div>	<div> <div>■ 학번</div> </div>	<div> <div>20171665</div> </div>
<div> <div>■ 담당 조교</div> </div>	<div> <div>곽진우</div> </div>	<div> <div>■ 이름</div> </div>	<div> <div>이선호</div> </div>
<div> <div>■ 읽기자료</div> </div>	<div> <div>강준만, 「대중문화 이론과 논쟁」, 『대중문화의 겉과 속』, 전면 개정판, 서울: 인물과사상사, pp.15~54.</div> </div>		
<div> <div>■ 독후감 제목</div> </div>	<div> <div>대중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대중문화</div> </div>		
<div> <div>■ 글의 개요</div> </div>	<div> <div> <div>1. 서론</div> <div>1)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div> </div> <div> <div>2. 본론</div> <div>1) 대중문화의 의의</div> <div>(1) 수용자의 능동성을 이끌어 낸 대중문화</div> <div>2) 대중문화의 한계</div> <div>(1) 대중문화 선택의 ‘구분짓기’와 선입견 고착화</div> <div>(2) 자본 논리의 지배를 받는 자극적인 대중문화</div> </div> <div> <div>3. 결론</div> <div>1) 대중문화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올바른 자세의 필요성</div> </div> </div>		

※독후감은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 / 마지막에 글자 수 기입.

‘대중문화의 홍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다양한 대중매체와 문화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우리 사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특히,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하고 있고, 예전보다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단순히 대중문화를 가볍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게 되었다. 즉, 우리는 수용자 입장에서 대중문화에 관해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대중문화는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의와 한계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대중문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까?

지금까지 대중문화의 발전은 수용자들의 능동성을 이끌어 주는 데 도움을 주었다. 수용자들은 기존의 관습이나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등과 반대되는 대중문화를 선택하고 받아들이면서 본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욕구를 공격적으로 표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대중문화의 소재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직장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최근에 와서 ‘직장의 신’이나 ‘미생’과 같은 드라마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위로받고 싶어 하는 직장인들이 현실의 문제를 집어 비판하는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현상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수용자들의 자세를 대변하고 있다고 본다.<sup>1)</sup>

그러나 대중문화가 맞닥뜨린 한계를 무시할 수 없다.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태도나 이에 대한 반응은 수용자 개인의 취향으로부터 주된 영향을 받지만, 수용자가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이나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아비투스(habitus)’도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수용자가 대중문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경제적 위치나 지적 수준을 의도치 않게 외부로 드러낼 수 있고, 이로 인해 대중문화의 선택 결과를 근거로 타인과 자신을 ‘구분 짓기’ 하거나 대중들의 선입견을 고착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표적으로 예술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화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예술영화 소비자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상한 취향의 상층계급’에 응답하였다.<sup>2)</sup>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예술영화 취향이 일종의 상층의 지위상징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암시하며, 이러한 선입견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는 걸 저해할 수 있다.<sup>3)</sup>

또한, 현재 대중문화는 자본 논리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더 많은 자본과 대중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대중문화를 더 자극적으로 만들고, 현명하지 못한 수용자들은 이를 여과 없이 받아들여 도덕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대표적인 젊은 세대의 대중문화 아이콘인 ‘아이돌’의 선정적인 모습이 매체를 통해 종종 노출되는데, 이는 젊은 세대의 수용자들이 성 상품화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새로운 기호 가치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sup>4)</sup>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한 세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도 이어지면서 수용자들은 아이돌 문화에서 기존의 것보다 더 자극적인 요소를 원하게 될 수

1) 김민지 기자, 「대중문화 화두 ‘고달픈 직장인’…시청자 “공감”」, KBS NEWS, 2014년 9월 11일, 검색일자: 2017년 6월 2일.

2) 권혜원 · 최선희, 「예술영화 취향의 구별짓기 - 예술영화와 대중영화의 구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제12집 1호』, 2011년, 「IV. 분석과 논의」, “3. 예술영화의 구별짓기적 위치와 상징성의 확인”, p. 55.

3) 권혜원 · 최선희, 「예술영화 취향의 구별짓기 - 예술영화와 대중영화의 구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제12집 1호』, 2011년, 「V. 분석과 논의」, p. 56 ~ 57.

4) 이수안, 「대중문화에서 기호가치로서 몸 이미지의 소비 양식 -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11』, 2011년 11월, 「I. 들어가며」, p. 198.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아이돌 문화에서 예전에는 흔히 볼 수 없었던 ‘쩍벌춤’ 또는 ‘하의 실종 패션’이라는 신조어의 등장이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요소를 원하는 대중문화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sup>5)</sup>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중문화는 수용자의 능동적인 선택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면에서 대중문화는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는 수용자가 ‘현명하다’라는 전제를 밑바탕에 두고 있다.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가감 없이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으며, 편견을 고착화하거나 사회를 분화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즉, 수용자의 자세에 따라 대중문화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중문화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대중문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되, 받아들이기 전에 과연 이 문화가 도덕적으로 건전한 것인지 고려해 보는 올바른 수용자의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공백포함 각주제외 1,978자)**

---

5) 이수안, 「대중문화에서 기호가치로서 몸 이미지의 소비 양식 -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11』, 2011년 11월, 'Ⅲ. 한국 아이돌 걸그룹 몸 이미지의 기호가치적 소비', "1. 아이돌 걸그룹의 이미지 유형", p. 222.